



미 증시, FOMC 의사록 소화, 차익실현물량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21 일(화) 미국 증시는 단기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대형 소매기업 실적 부진, FOMC 의사록 결과 등을 소화하며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 (다우 -0.18%, S&P500 -0.20%, 나스닥 -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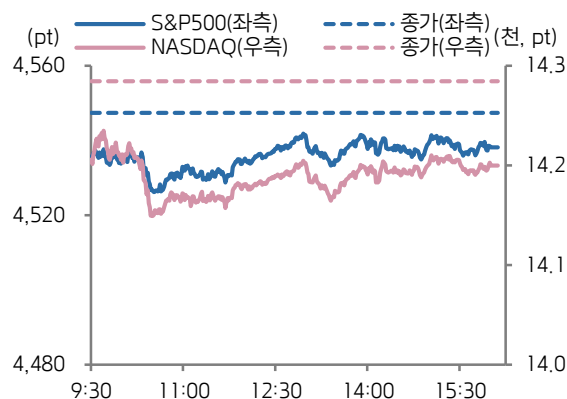
11 월 FOMC 회의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인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인플레이션도 2% 목표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 오히려 “대부분의 회의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이 재개될 위험성을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포함. 다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carefully) 결정한다”는 표현 언급.

채권 금리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이 상승한 것을 주 원인으로 지적.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주 요인이 무엇이든 간에 금융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면 통화정책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

미국 10 월 기준 주택매매는 MOM -4.1%(예상 -1.5%, 전월 -2.2%) 기록하며 13 년만에 최저수준 기록. 고금리로 인한 주택 수요자의 지불 능력 감소와 집값 상승세가 주택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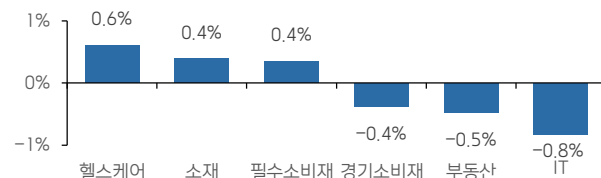
업종별로 헬스케어(+0.6%), 소재(+0.4%), 필수소비재(+0.4%) 강세, IT(-0.8%), 부동산(-0.5%), 경기소비재(-0.4%) 약세. 로우스(-3.11%)는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연간 전망을 이전의 870~890 억 달러에서 860 억 달러로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약세. 대형 소매업체 콜스(-8.61%) 동일매장 매출 감소로 7 년 연속 매출이 감소하며 가이드언스를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급락. 대형 전자제품 소매업체 베스트바이(-0.69%)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고르지 못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하락.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매출 및 EPS 예상치 상회함에도 그동안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출회, 미국의 수출 규제 강화 여파로 이번 분기인 2024 회계연도 4·4 분기 중국을 비롯한 규제 지역 매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시간외 -1% 하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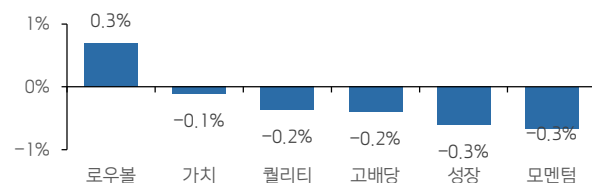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10.42	+0.77%	USD/KRW	1,289.20	-0.2%
코스피 200	336.57	+0.7%	달러 지수	103.60	+0.16%
코스닥	817.01	+0.48%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291.13	+0.27%	USD/CNH	7.14	+0%
S&P500	4,538.19	-0.2%	USD/JPY	148.34	-0.03%
NASDAQ	14,199.98	-0.59%	채권시장		
다우	35,088.29	-0.18%	국고채 3년	3.639	-2bp
VIX	13.35	-0.45%	국고채 10년	3.710	-3.5bp
러셀 2000	1,783.26	-1.32%	미국 국채 2년	4.872	-3.9bp
필라. 반도체	3,732.79	-1.92%	미국 국채 10년	4.393	-2.7bp
다우 운송	14,997.40	+0.1%	미국 국채 30년	4.548	-2.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31.90	-0.24%	WTI	77.77	-0.08%
MSCI 전세계 지수	690.40	+0.69%	브렌트유	82.48	+0.19%
MSCI DM 지수	3,004.88	+0.66%	금	2021.8	+1.07%
MSCI EM 지수	985.41	+0.91%	은	23.87	+1.08%
MSCI 한국 ETF	62.88	-0.99%	구리	381.25	-0.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6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3.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감당가능했던 FOMC 의사록 및 금리 하락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최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3. 호실적을 기록한 엔비디아의 시간외 주가 하락이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1월 FOMC 이후 시장금리 하락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었던 11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들은 당시까지의 미국 경기 호조세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으며, 2% 물가로 복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 또 최근 수개월 간 금융시장의 여건은 상당히 긴축이 된 상태이나, 긴축이 지속될 지 여부를 놓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하는 등 전반적인 이들의 톤은 매파적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날 미국 증시가 차익실현 압력으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10년물 금리가 4.4%대를 하회했다는 점이나 CME Fed Watch 상 12월 동결 및 내년 상반기 금리인하 컨센서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은 FOMC 의사록에서 논의된 매파적인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해왔던 재료였던 것으로 보임.

장기 금리 급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헤지펀드의 레버리지로 인한 잠재적 취약성 등을 논의했다는 점도 눈길이 가는 부분. 연준이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목표 이외에도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는 향후에도 연준은 긴축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시에는 톤을 하면서 시장 불안을 진정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 반대로 작년 11~12월에 그랬던 것처럼, 정책 전환, 인플레 지표 등을 놓고 시장에 과도하게 낙관론이 형성된다면 FOMC 혹은 연설을 통해 매파 톤을 재차 높여가면서 낙관론을 억제할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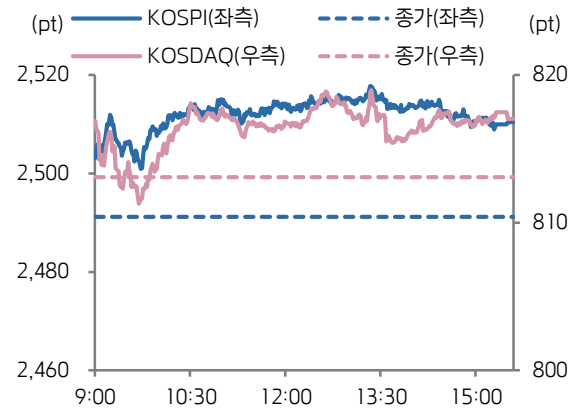
따라서, 주가 복원력 자체는 유효하지만, 연말 산타렐리 보다는 저점을 높아가면서 완만한 주가 상승 경로를 그려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작년 11월 시장은 10월 CPI에 환호하면서 12월까지 랠리를 펼쳤으나,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12월 FOMC로 인해 그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주가 급락을 경험했던 사례를 참고).

전일 국내 증시는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에코프로머티(+29.8%)를 제외한 대부분 이차전지주들의 차익실현 물량에도, 환율 하락, 미국 금리 하락 등 긍정적인 외부 여건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강세(코스피 +0.8%, 코스닥+0.5%).

금일에는 감당 가능한 결과였던 FOMC 의사록, 주택 지표 둔화 및 그에 따른 금리 하락 등 양호한 매크로 환경에도 차익실현 압력을 받으면서 제한된 레인지에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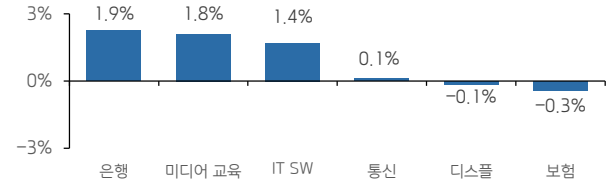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엔비디아(-0.9%)의 장 마감 후 실적 결과의 국내 증시 영향력을 확인해볼 필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181억달러 vs 컨센 161억달러), 주당순이익(4.0달러 vs 컨센 3.4달러)은 데이터 센터(145억달러 vs 컨센 128억달러) 등 주력 사업 호조에 힘입어 서프라이즈를 기록. 다만, 이 같은 호실적은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보니 7시 기준 시간외에서 주가가 1%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기에, 향후 컨퍼런스콜에서 언급되는 가이드언스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금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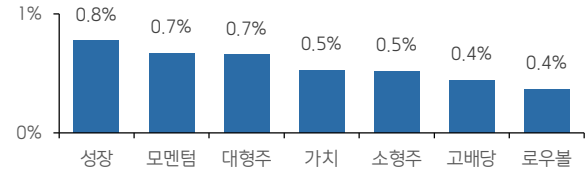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